

(4)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Henry David Thoreau, 1817-1862)<sup>1)</sup>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1817년 매사추세츠주의 콩코드(Concord)에서 출생했다. 소로우의 아버지는 연필 제조공이었지만 자연에서 사색하고 노예제 폐지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정도로 사회의식이 높은 사람이었다. 이런 영향은 이후 소로우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833년 소로우는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으며, 그곳에서 수사학, 고전, 철학 등을 배웠다.

1837년 소로우는 하버드 대학에 강연을 하러 온 에머슨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을 계기로 소로우는 평생 에머슨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 에머슨이 초절주의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라면 소로우는 초절주의를 실제 실천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대학을 졸업 후 생계를 위해 잠시 교사생활도 하고 연필 제조일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그는 글을 쓰고 사색하는데 할애 했다. 1845년 소로우는 콩코드 인근의 월든(Walden) 숲 속에 오두막을 짓고 독서와 사색의 2년을 보냈다. 그 기간 동안 소로우는 『콩코드와 메리맥 강에서의 일주일』(*A Week on the Concord and Merrimack Rivers*, 1849)을 집필했다. 이후 소로우는 숲속에서의 생활을 담은 그의 대표작 『월든』(*Walden, or Life in the Woods*, 1854)도 이 시기에 대부분 집필된 것이다.

소로우는 철저하게 초절주의를 몸소 실천하면서 자연 속에서 신의 존재를 느끼려 했다. 그는 노예제를 반대했고, 자연과 인간의 원래 모습을 존중했으며,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와 활동을 억압하는 어떤 종류의 법률이나 제도에 대해서도 그는 날카롭게 반대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스승이었던 에머슨보다 훨씬 더 혁명적인 성향을 보였다. 그 예로 미국이 멕시코와 전쟁을 벌였을 때 인두세 납부를 거부한 일로 투옥되기도 했는데, 그는 나쁜 정부에 시민은 복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의 1848년 에세이 “시민 불복종”(Resistance to Civil Government, or Civil Disobedience, 1848)을 통해 주장했다. 소로우는 1854년 『월든』을 발표한 이후 계속 집필과 사회운동에만 몰두했다. 그러다 결핵에 걸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되었다. 그는 죽어 가면서도 자신의 저서 『콩코드와 메리맥 강에서의 일주일』의 마지막 장을 읽어 달라고 했다.



Henry David Thoreau<sup>2)</sup>

I HEARTILY ACCEPT the motto, — "That government is best which governs least"; and I should like to see it acted up to more rapidly and systematically. Carried out, it finally amounts to this, which also I believe, — "That government is best which

1) 소로우의 작품을 편리하게 정리해 둔 참고 사이트:

<http://www.vcu.edu/engweb/transcendentalism/authors/thoreau/writings.html>

2) [http://en.wikipedia.org/wiki/Henry\\_David\\_Thoreau](http://en.wikipedia.org/wiki/Henry_David_Thoreau)

governs not at all"; and when men are prepared for it, that will be the kind of government which they will have. Government is at best but an expedient; but most governments are usually, and all governments are sometimes, inexpedient. The objections which have been brought against a standing army, and they are many and weighty, and deserve to prevail, may also at last be brought against a standing government. The standing army is only an arm of the standing government. The government itself, which is only the mode which the people have chosen to execute their will, is equally liable to be abused and perverted before the people can act through it. Witness the present Mexican war, the work of comparatively a few individuals using the standing government as their tool; for, in the outset, the people would not have consented to this measure.

- Part 1, *Civil Disobedience*.

### I Knew A Man By Sight

I knew a man by sight,  
A blameless wight,  
Who, for a year or more,  
Had daily passed my door,  
Yet converse none had had with him.

I met him in a lane,  
Him and his cane,  
About three miles from home,  
Where I had chanced to roam,  
And volumes stared at him, and he at me.

In a more distant place  
I glimpsed his face,  
And bowed instinctively;  
Starting he bowed to me,  
Bowed simultaneously, and passed along.

Next, in a foreign land  
I grasped his hand,  
And had a social chat,  
About this thing and that,  
As I had known him well a thousand years.

Late in a wilderness

I shared his mess,  
For he had hardships seen,  
And I a wanderer been;  
He was my bosom friend, and I was his.

And as, methinks, shall all,  
Both great and small,  
That ever lived on earth,  
Early or late their birth,  
Stranger and foe, one day each other know.

THIS IS A delicious evening, when the whole body is one sense, and imbibes delight through every pore. I go and come with a strange liberty in Nature, a part of herself. As I walk along the stony shore of the pond in my shirt-sleeves, though it is cool as well as cloudy and windy, and I see nothing special to attract me, all the elements are unusually congenial to me. The bullfrogs trump to usher in the night, and the note of the whip-poor-will is borne on the rippling wind from over the water. Sympathy with the fluttering alder and poplar leaves almost takes away my breath; yet, like the lake, my serenity is rippled but not ruffled. These small waves raised by the evening wind are as remote from storm as the smooth reflecting surface. Though it is now dark, the wind still blows and roars in the wood, the waves still dash, and some creatures lull the rest with their notes. The repose is never complete. The wildest animals do not repose, but seek their prey now; the fox, and skunk, and rabbit, now roam the fields and woods without fear. They are Nature's watchmen — links which connect the days of animated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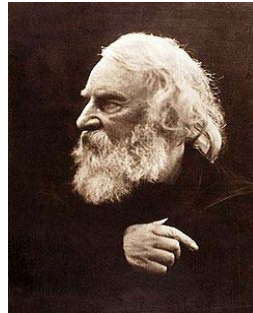
- "Solitude," in Walden

(5) 헨리 와즈워스 롱펠로우(Henry Wadsworth Longfellow, 1807-1882)

헨리 롱펠로우는 1807년 메인주 포틀랜드에서 출생했다. 아버지가 법률가였고 외가 쪽의 할아버지가 독립전쟁 당시 장군이었던 관계로 보수적인 집안 분위기에서 성장했다. 15살에 그의 할아버지가 설립한 보도인 대학(Bowdoin College)에 입학하였으며, 그곳에서 나다니엘 호손(Nathaniel Hawthorne)을 만나 평생 친구가 되었다. 졸업후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으며 그곳에서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독학으로 습득했다. 유럽여행에서 돌아와 그는 모교인 보도인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보도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롱펠로우는 행복하지 못했다. 시험과 채점 등 일상적인 가르침에 행위에 따분해 했다. 더구나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아내는 유산 후유증에서 회복하지 못했고 22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했다. 아내의 사망으로 슬픔에 차 있었던 롱펠로우는 미국을

잠시 떠나있다 돌아와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게 되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서 롱펠로우의 보스턴 브라민(Boston Brahmins)이라 불렀던 보스턴의 지식 귀족들을 대표하는 시인이었다. 롱펠로우 이외에 보스턴 브라민에 가입했던 대표적인 시인으로는 올리버 웬델 홈스(Oliver Wendell Holmes)과 제임스 러셀 로웰(James Russell Lowell)이 있다. 이들은 초절주의자들의 시각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전통적인 보수성향의 시를 썼다. 특히 롱펠로우는 누구나 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인생의 경험과 깨달음을 시적 소재와 주제로 하였다.



Henry Wadsworth Longfellow<sup>3)</sup>

#### A Psalm of Life

Tell me not, in mournful numbers,  
Life is but an empty dream!  
For the soul is dead that slumbers,  
And things are not what they seem.

Life is real? life is earnest?  
And the grave is not its goal:  
Dust thou art, to dust returnest,  
Was not spoken of the soul.

Not enjoyment, and not sorrow,  
Is our destin'd end or way;  
But to act, that each to-morrow  
Find us farther than to-day.

Art is long, and time is fleeting,  
And our hearts, though stout and brave,  
Still, like muffled drums, are beating  
Funeral marches to the grave.

In the world's broad field of battle,

---

3) [http://en.wikipedia.org/wiki/Henry\\_Wadsworth\\_Longfellow](http://en.wikipedia.org/wiki/Henry_Wadsworth_Longfellow)

In the bivouac of Life,  
Be not like dumb, driven cattle!  
Be a hero in the strife!

Trust no Future, howe'er pleasant!  
Let the dead Past bury its dead!  
Act?act in the glorious Present!  
Heart within, and God o'er head!

Lives of great men all remind us  
We can make our lives sublime,  
And, departing, leave behind us  
Footsteps on the sands of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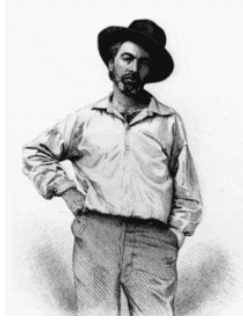
Footsteps, that, perhaps another,  
Sailing o'er life's solemn main,  
A forlorn and shipwreck'd brother,  
Seeing, shall take heart again.

Let us then be up and doing,  
With a heart for any fate;  
Still achieving, still pursuing,  
Learn to labor and to wait.

(6) 월트 휘트먼(Walt Whitman, 1819-1892)

휘트먼은 미국의 국민 시인이자 저널리스트이면서 인문주의자로 평가된다. 롱 아일랜드에서 출생했으며, 목수였던 아버지를 따라 4살 때 부록클린으로 이사했다. 집안의 가난한 형편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초등학교를 중퇴하였으나 독학으로 학문과 교양을 익혔다. 휘트먼은 저널리스트로서 정당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민주당계 정당지 “부록클린 독수리”(Brooklyn Eagle)의 편집자가 되었지만 민주당내의 보수 세력과의 마찰로 얼마 못가 편집직을 그만두게 되었다.

휘트먼은 여행과 노동을 통해 보통사람들의 모습과 그들 내면에 잠재된 민중의 꿈을 몸소 느끼고 체험했으며, 틈틈이 이후 『풀잎』 (*Leaves of Grass*, 1855)이란 걸작으로 탄생될 시들을 쓰기 시작했다. 1855년 휘트먼의 형 조지(George)는 동생의 허락도 없이 그동안 집필된 작품들을 모아 『풀잎』의 초판을 찍었다. 초판에는 휘트먼의 이름도 없었고 단지 표지에 휘트먼의 모습을 동판화로 찍어 놓은 것이 전부였다. 초판은 자비로 795부를 인쇄했는데, 이 책에 대해 에머슨은 열정적인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풀잎』은 그 내용의 외설성으로 인해 엄청난 비난과 지탄을 받기도 했다.



『풀잎』 초판 표지 동판화로 인쇄된 휘트먼<sup>4)</sup>

『풀잎』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이전의 시와는 다른 면을 가지고 있었다. 한 개인의 깨달음과 평범한 개인의 위대함을 노래했기 때문에 『풀잎』은 초절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면서 사실주의적인 면을 보인다. 또한 『풀잎』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찬미를 자유시(free verse)라는 형식에 담았기 때문에 휘트먼은 미국 자유시의 아버지로 불린다. 『풀잎』을 둘러싼 당시 가장 뜨거웠던 논란은 그 이전의 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공공연한 성적 내용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시적 내용은 휘트먼 자신의 동성애 혹은 양성애 성향에 대한 당시의 소문과 결부되어 당시 대단한 사회적 관심거리가 되었다.

1885년 『풀잎』의 초판이 나오고 난 이후 『풀잎』은 계속해서 새로운 시가 추가 되면서 1892년 휘트먼이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 뇌졸중 발작이 있는 후 휘트먼은 뉴저지 캠던(Camden)으로 내려와 휴식을 취했지만 그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1892년 72세의 나이로 휘트먼은 죽었고 그의 장례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러졌다.



Walt Whitman<sup>5)</sup>

Song of Myself

I celebrate myself, and sing myself,  
And what I assume you shall assume,  
For every atom belonging to me as good belongs to you.

4) 당시 37세였던 휘트먼의 모습으로 『풀잎』의 표지에 등장한 모습이며, 동판화는 사무엘 홀리어(Samuel Hollyer)가 제작했다. [http://en.wikipedia.org/wiki/Leaves\\_of\\_Grass](http://en.wikipedia.org/wiki/Leaves_of_Grass)

5) [http://en.wikipedia.org/wiki/Walt\\_Whitman](http://en.wikipedia.org/wiki/Walt_Whitman)

I loafe and invite my soul,  
I lean and loafe at my ease observing a spear of summer grass.

My tongue, every atom of my blood, form'd from this soil, this air,  
Born here of parents born here from parents the same, and their  
    parents the same,  
I, now thirty-seven years old in perfect health begin,  
Hoping to cease not till death.

Creeds and schools in abeyance,  
Retiring back a while sufficed at what they are, but never forgotten,  
I harbor for good or bad, I permit to speak at every hazard,  
Nature without check with original energy.<sup>6)</sup>

When Lilacs Last In The Dooryard Bloom'd.<sup>7)</sup>

1  
WHEN lilacs last in the dooryard bloom'd,  
And the great star early droop'd in the western sky in the night,  
I mourn'd, and yet shall mourn with ever-returning spring.

Ever-returning spring, trinity sure to me you bring,  
Lilac blooming perennial and drooping star in the west,  
And thought of him I love.

2  
O powerful western fallen star!  
O shades of night—O moody, tearful night!  
O great star disappear'd—O the black murk that hides the star!  
O cruel hands that hold me powerless—O helpless soul of me!  
O harsh surrounding cloud that will not free my soul.

3  
In the dooryard fronting an old farm-house near the white-wash'd  
    palings,  
Stands the lilac-bush tall-growing with heart-shaped leaves of rich

---

6) 『풀잎』, Book III, Song of Myself의 첫 부분. 휘트먼의 『풀잎』에 대한 전문은 다양한 포맷형태로 <http://www.gutenberg.org/ebooks/1322>에서 출력받을 수 있다.

7) 링컨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한 시.

green,  
With many a pointed blossom rising delicate, with the perfume  
strong I love,

O Captain! My Captain

O Captain my Captain! our fearful trip is done,  
The ship has weathered every rack, the prize we sought is won,  
The port is near, the bells I hear, the people all exulting,  
While follow eyes the steady keel, the vessel grim and daring;  
But O heart! heart! heart!  
O the bleeding drops of red,  
Where on the deck my Captain lies,  
Fallen cold and dead.

O Captain! my Captain! rise up and hear the bells;  
Rise up--for you the flag is flung for you the bugle trills,  
For you bouquets and ribboned wreaths for you the shores a-crowding,  
For you they call, the swaying mass, their eager faces turning;  
Here Captain! dear father!  
This arm beneath your head!  
It is some dream that on the deck,  
You've fallen cold and dead.

My Captain does not answer, his lips are pale and still;  
My father does not feel my arm, he has no pulse nor will;  
The ship is anchored safe and sound, its voyage closed and done;  
From fearful trip the victor ship comes in with object won;  
Exult O shores, and ring O bells!  
But I, with mournful tread,  
Walk the deck my Captain lies,  
Fallen cold and dead.